

광산구 개청 이래 최대 승진잔치 관심

4급 서기관 6명·5급 사무관 9명 등 105명 예정...인사적체 해소 기대감

광주시 광산구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개청 이래 최대 '승진 잔치'가 될 것으로 전망돼 공직 사회 내부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6일 인사위원회 심의와 9일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예고를 거쳐 오는 20일 단행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4급 서기관 6명을 비롯해 5급 사무관 9명이 승진 발령될 예정이다.

또 6급 8명과 7급 39명 및 8급 43명 등 총 105명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돼 광산구 개청 이래 역대급 승진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승진 인사의 경우 무려 6자리 4급 국장급의 승진 요인이 발생해 공직 사회에 활력소가 되고 있

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국장 2자리도 늘었다.

또 기존 이상봉 도시안전국장장의 명예퇴직, 김형준 자치교육국장, 김옥태 복지국장, 문만수 시민생활국장 등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4급 승진 인사 요인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5급 승진 인사의 경우도 질병휴직 및 장기교육복직자 4명을 제외하면 9명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산구 고위직 인사의 '승진잔치'가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승진대상자들은 여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승진 예정자들을 놓고 각종 소문이 설왕설래 하고 있다.

4급 서기관 승진 후보군으로 박희배 홍보실장과, 전상희 도시재생과장, 김팔용 기획실장, 정찬영 청소과장, 나교식 송정1동장, 조선영 복지과

장, 전경희 주민자치과장, 임은진 보건행정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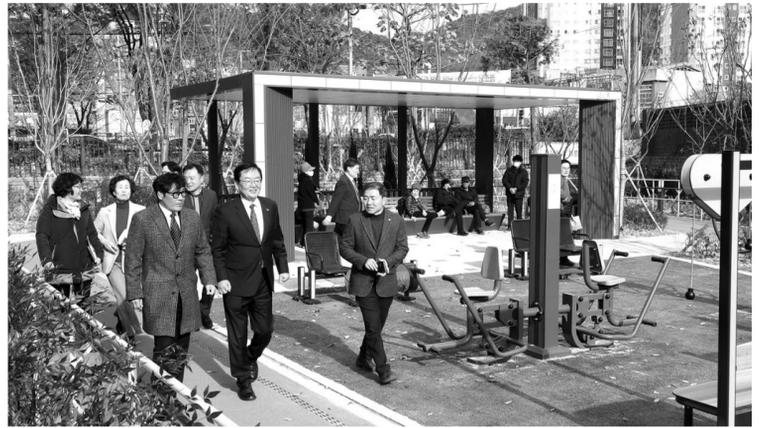
하지만 인사권자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그동안의 인사방향을 감안하면 4급 서기관 승진에는 의외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급 사무관 승진 후보군으로는 박희영(청소팀장), 정희정(인사팀장), 양승철(재산세팀장), 문혜연(일자리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지난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 광주시로 옮겨 갔었던 김양숙 행정부장(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의 전임설이 돌면서 광주시와 인사 교류 여부 등도 각별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조직의 특성상 나이와 기여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선 8기 후반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직원들에게 우선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북구, 주거환경 새단장 '편의시설 이용하세요' 3일 광주시 북구 각화추공1단지에서 열린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 새단장 사업의 일환인 주거환경 Change-Up 준공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주민들이 새롭게 단장한 편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한강 노벨문학상 기념 '북구 문학의 밤'

북구 '미디어파사드와 함께하는...' 10일 광주비엔날레 광장

한강 작가가 나고 자란 광주시 북구에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일 오후 4시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과 비엔날레 광장에서 '미디어파사드와 함께하는 북구 문학의 밤'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문학의 밤 행사는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를 기념하고 한강 작가 작품을 매개체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며 기념식과 각종 부대행사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기념식은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12월 이야기' 등 '한강 작가의 자작곡 축하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한강 작가 소개 및 북구민 축하 영상' 상영과 함께 한강 작가 작품 '소년이 온다 낭독회'가 열린다.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축하 멘트 등 '한강 작가에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풍등 날리기 퍼포먼스'가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펼쳐질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한강 작가 작품 필사존', '한강 작가 작품 표지를 활용한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포토존'이 설치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 6곳이 운영하는 북 커버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크리스마스 비누 만들기, 책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드라이 플라워 캔들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등의 행사도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추가로 '지역 독립서점 홍보 공간'도 조성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수상이라는 위대한 업적이자 북구 향유 문학인이 이루어낸 국가적 경사"라며 "이번 수상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작가를 꿈꾸는 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학의 밤 행사와 더불어 같은 날 '중흥도서관'에서는 이희재 번역가의 한국 문학 속 빛나는 번역 특강강연이 열리고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메달 키링 만들기', '한강 관련 키워드 십자말 퍼즐 풀기' 등 체험프로그램,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도서 전시전 등 '한강의 문학, 세계의 빛이 되다' 주제로 축하 행사가 열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통기타가 있는 행복 콘서트' 광주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열린 '제3회 1인 1악기, 통기타가 있는 행복 콘서트'에서 광주시 동구 초등학생들이 기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콘서트는 모든 학생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구가 진행하는 '1인 1악기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수업 종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동구 제공>

"내년도 노인 일자리 신청하세요"

광주시 5개 지자체 13일까지 모집...사회참여·소득지원

광주시 5개 지자체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4일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 대상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지원을 위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동구 모집인원은 총 90개 사업으로 4225명이다. 모집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지역 연금 수급자(소득·재산 기준 적합자)이며, 일부 일자리는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공익 활동 사업 3062명(기초·지역 연금 수급자), 역량 활용 사업 690명(65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공동체 사업단 277명(60세 이상, 취업

알선형 196명(60세 이상)을 선발 기준표에 따라 선발한다. 내년 1월부터 사업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남구도 7844명에게 노인일자리 제공한다.

남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남구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관내 복지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 18곳과 손잡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유형별 일자리 수 현황을 보면 공익 활동형 분야에서는 어르신 5635명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역량 활용형에서는 14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공동체 사업단형과 취업 지원형 분야에서는 어르신 591명과 18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공익 활동형 분야 업무는 관내 공공시설 관리를 비롯해 재활용품 관리, 초등학교 스크론티 및 급식 지원, 지역 내 주거 및 생태환경 정화 등이다.

역량 활용형 분야 참가 어르신은 부당광고 감시와 위해정보 수집 신고 등 소비자 지킴이 사업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안심 도우미, 어린이집 보육 지원사업, 어르신 이용 시설 관련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는 전문 직종 분야로, 보건복지부에 납품하는 명아주 지팡이 제작을 비롯해 환자복과 위생복 같은 병원 맞춤형 봉제 용품 제작,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 강사, 농산물 가공 등에 종사한다.

참여 희망자는 1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수행 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서구, 암 의심 판정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광주시 서구가 암 유소견 판정을 받은 지역민들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대장암 또는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장암 검사 지원대상은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이 있는 만 50세 이상 서구민이며, 유방암은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또는 '판정유보'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2차 정밀검사를 받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다.

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대장

내시경 수면검사비 또는 유방 초음파비에 대해 최대 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구 보건소 2층 암·희귀질환 의료비 접수실에서 가능하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은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암 조기 발견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